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약함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8월 11일 (토) 제 169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하나님 만나려고 난 오늘도 교회에 간다!”

#### 퓨리서치, 미 성인 4,729명 설문결과 통해 교회에 가거나, 가지 않은 이유 밝혀

미국 교회 출석율이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듯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와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가 밝혀졌다(Why Americans Go (and Don't Go) to Religious Services: Many cite practical or personal reasons, rather than lack of belief, for staying home).

퓨리서치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성인 4,729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그 결과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 중 81%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교회에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겉핥기 역시 얼마 전,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로 담회자나 경배와 찬양 리더 때문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는 동일한 맥락의 설문 결과를 밝혔다. 라이프웨이 또한 오랜 기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날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유가 교회의 신앙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올 때라고 발표했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81%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 지려고 교회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교회 출석률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인 중 30%는 매주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다른 30%는 전혀 교회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주일예배 출석률은 58%로 꾸준히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다.

미 성인 중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중 가장 압도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함”이다. 그리고 69%는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 “도덕적 근간”을 형성하기 위함이고, 68%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며, 66%는 고난이나 슬픔에 잠겼을 때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있다.

퓨리서치는,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인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71%는 매일 기도하며 △56%는 여성들이고 △55%는 50세 이상이며 △31%는 대학 졸업자들이었다.

이들은 앞서 밝힌 원인들 이외에도, △“좋은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리고 △교회공동체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오고 있었다. 여기에, △가족의 신앙적 전통 때문에(37%) △종교적 의무라는 감정(31%)이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로 선정됐다.

반면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다든지(19%) △배우자나 가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16%)라는 부차적인 요소들도 발견됐다.

퓨리서치는 또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가 무엇인지도 물었다.

전반적으로 61%나 되는 응답자들이, 압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압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어떠한 원인이 이에 필적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과 8%만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고, 0.5% 정도가 ‘신앙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고난/슬픔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 그리고 ‘자녀들의 바른 도덕 형성과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밝혔다.

한편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1년에 한두 번 올까말까한 경우로 정의

할 경우, 미국인 중 30% 이상은 교회에 오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로, 신자가 아니어서(28%) 오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응답 결과는 바로 다음이다: △37%는 교회가 아닌 다른 방법들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23%는 아직까지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18%는 맘에 드는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있다 △22%는 교통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다.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응답자들 중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원인들은 좀 더 구체적이다:

(3면으로 계속)

### 교회가 교회다움 보여주라!

#### 처치리더스.컴, Z세대 신앙 일깨우기 위한 제언 보도

지난 몇 년간 교회 출석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비난을 일명 Y세대(또는 밀레니엄 세대, 198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의 믿음이 부족함 것으로 돌리고 있다. 'PRRI(공공종교연구소,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거의 4명이 무신론이라고 주장한다. 10명 중 6명은 어릴 때 받은 종교적 가르침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답한다. 그러나 Y세대를 뒤따르는 18살에서 24살 사이의 Z세대에는 이런 추세가 끝날 수도 있다는 징조가 보인다. 최소한 그런 사고의 씨앗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Study Finds Openness to the Gospel in Generation Z).

### “교회가 성경적 진리 지지하며 신념에 타협 않고 믿음 없는 문화에서 믿음 지키는 공동체 보여줘야”

종교인의 태도에 관한 영국인 4,087명의 새로운 주요 조사에 따르면, Z세대는 Y세대보다는 기독교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탈 기독교” 첫 세대로 생각하는 Z세대는, 대부분 기독교인과 기독교에 긍정적인 경험을 가졌다고 응답(5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예배에 참석한다(33%)고 답하고, 또한 직장에서 동료와 종교적 믿음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편하게 느낀다(62%)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면, 또한 무신론자이거나 종교가 없는 것이 ‘더 보통’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회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게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도덕과 존재론적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는 삶과 직업이 의미하는 존재에 관한 질문을 뜻한다. 우리는 이들이 현재 교육 체계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더럼대학교(the University of Durham) 밴 밀러트(Van Mildert) 신학대학 사이먼 올리버(Simon Oliver) 교수는 텔레그래프(the Telegraph)에서 전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오프믹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a href="http://www.wmu.edu">www.wmu.edu</a>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예술서적 / 영구 / 생애 학회 / 가운 / 도배물 / 영문서적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39th St. #118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innard Rd. Teaneck, NJ 07666

문의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gosselpm1@hhotmail.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행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b>시론</b> 은희곤 목사	<b>2면</b>	 <b>신앙과 삶 (1)</b> 하형록 목사	<b>16면</b>
-------------------------	-----------	--------------------------------	------------

축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CS 인가 및 학생모집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박사원 학위과정**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선교학 박사 (Doctor of Missiology)

**가을학기 1차 서류지원 마감 8월 30일(금)**

**박사원 연락처 714-365-1123(담당 황의성박사)**  
 dmiss@gm.edu/phd@gm.edu  
 홈페이지 [www.gm.edu](http://www.gm.edu)

ATS 정회원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북미주 한인 신학교 최초로 TRACS 인가 아래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ntercultural Studies)**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선교 영역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게 될 본 과정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본교가 등록된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ts trocs ABHE BPPE CHEA ED.gov

특전: 선교사장학금 / 목회자장학금 / I-20 발급 / 교수요원 양성 / 탁월한 교수진

**GMU 학위과정**

BA 학사  
 MAICS 선교문학석사  
 MACE 교육학석사  
 MDiv 신학석사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 Fax, 714.525.0089  
 gmuc@gm.edu | www.gm.edu

#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라!

## CT, J. R. 브릭스 목사의 7가지 아이디어 소개

사람들은 성경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리라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읽지 않는다. 성경 읽기 및 체험(Bible engagement)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성경읽기협회(Institute for Bible Reading)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북미 지역 일반 가구에는 성경 네 권, 기독교 가정에는 성경 열한 권이 있다. 그럼에도 매일 700명이 성경 읽기를 완전히 포기한다.

목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을 생각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계적이고 의무적인 성경 읽기를 넘어 깊이 있는 성경 체험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7 Ideas for Improving Bible Engagement in Your Church:How to encourage a deeper experience of Scripture)?

### 얕은 읽기를 넘어

성경 읽기는 얼마나 중요한가? 그레 호킨스와 켈리 파킨슨은 공저 “무브(Move)”에서 1,000개 교회의 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은 그들이 내린 결론이다:



유진 버나드의 “The Disciples Peter and John Running to the Sepulchre on the Morning of the Resurrection”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태도를 취한다. 사람들은 성경이 드러내는 것보다 성경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 성경 체험을 강화하는 일곱 가지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서 성경 체험을 강화할 수 있을까? 시도해볼 만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1. 필사하라

## 많은 분량의 성경을 고유의 맥락 안에서 함께 읽기 온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 읽도록 필사, 질문(다같이), 대입, 거룩하게, 암송, 성화활용

교회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자기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이다.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성경의 능력은 우리가 이제껏 발견한 그 어떤 것 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으라고 제안한다.

테일러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사역을 가르치는 필 콜린스 교수는 깊이 있는 성경 체험이란 성경을 오랜 동안 곰곰이 숙고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정보 습득이나 죄책감, 자존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다. 관계적인 것이다.” 그는 이런 종류의 체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기뻐하게 된다고 말한다(시 119).

을 들어 눈부시게 빛나는 나무를 가리키며 다섯 살 난 아들에게 말했다. 장박을 바라보던 아들은 한쪽 눈썹을 치켜뜨고 는 뒤돌아 나를 바라보았다.

“필요, 아빠?” “저거 안 보이니? 아름답잖아, 그렇지?” 아들은 눈으로 내 손끝을 따르다가 무표정하게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울긋불긋한 나무 잎이 달린 저 나무가 참 아름답지 않니?” “어떤 나무요?” 그제서야 나는 아들 녀석이 내가 가리킨 곳과 매우 가까운 유리창의 작은 얼룩을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들은 대신에 본문 속으로 깊이 잠수 를 했다.

(3면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을까?

몇 해 전 어느 가을 아침, 거실 장박을 바라보다가 이웃집 나무에 단풍이 든 것을 보았다. “저기 좀 봐!” 나는 유리창 쪽으로 손가락



## 시론

### 행복한 삶!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번아웃증후군’(burnout syndrome)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면 결국 신체적, 정신적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감이 쌓이고 쌓여 “우울증,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거부 증”에 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라 무섭게 집중하다가 갑자기 모든 에너지가 방전돼 무기력이 극에 달하면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휴식을 뒤로 한 채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에 몰두하는 한국 직장인들에게 가장 빈번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남녀 직장인 601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4.7%가 자신이 ‘번아웃증후군’이라고 응답했고, 미국 이민사회에서 스몰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9.7%가 자신이 ‘번아웃증후군’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워커홀릭증후군’(Workaholic syndrome)도 있습니다. 오직 ‘일을 해야 살맛이 나는’ 일에 대한 집념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워커홀릭’은 1980년대 초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여러 원인이 있지만, 보통 경제력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완벽을 추구하거나 성취 지향적인 사람, 자신의 능력을 과장되게 생각하는 사람, 배우자와 가정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 등등에게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워커홀릭’이 다 그렇지는 않으며, 말 그대로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욱 즐거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높은 분들이 이런 유형이면 밑의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과로사의 비율이 높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분들 중에 자기처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단순히 ‘게으른 사람’ 내지는 ‘조직에의 충성심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의 소유자이면, 그야말로 아랫사람들에게는 지옥일 겁니다.

“번아웃 증후군”이 주로 외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워커홀릭 증후군’은 개인적인 내면적 성향에 의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들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가정이 파괴되고 주변 지인들이 떠나면서 고독과 외로움에 스스로 갇히게 되고, 점점 모든 시간들을 컴퓨터에서 해결하기 시작하는 등등의 서브컬처(Subculture)가 나타납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런 현상들이 가져오는 결과를 “Isolation”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 “분리, 격리, 고립” 공동체성의 파괴입니다. 그렇다면 일정부분 이런 상황을 이기는 길이 있다면? 물론 휴식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휴식을 통한 관계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일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논어(論語) 용어편(雍也篇)에 보면, “지지자(知知者)는 불여호지자(不知好知者)요, 호지자(好知者)는 불여낙지자(不知樂知者)”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책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자가 축구를 즐기는 자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도에 대해 아는 자보다 기도하는 일을 좋아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기도를 즐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대해 아는 자보다 그 일을 좋아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그 일을 즐기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즐기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거기에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 한분이 계십니다.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난 이렇게 목회가 재밌어, 행복해, 감사해.” 생각해 봅니다. 그 교회라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항상 즐기면서 목회를 하시니 그 목사님에게서는 행복한 목회의 향내가 풍겨납니다. 행복한 삶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성공한 삶’과 ‘행복한 삶’이라는 화두가 마음을 집니다. 성공한 삶보다는 행복한 삶을 따라가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입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재정만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취미 활동이나 아이들과 가족들과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연봉이 작더라도 자기가 즐기는 일을 선택합니다. 생존에 치여 살았던,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이민 1세대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민 1세대들은 가족들을 뒷바라지 해야만 하는 강박적 생존위기에선 원치 않아도 거의 모두가 ‘번아웃 증후군’, ‘워커홀릭 증후군’에 근접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잘 커간 자녀를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일말의 보상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이민 1세대들도,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들을 즐기면서 ‘행복한 삶’ 쪽으로 삶의 무게 중심을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면 어떨까요? 거기에 개인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요즘 길마다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의 행렬을 바라보며 한 여름에 잠시 생각해보았습니다.

pastor.eun@gmail.com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b> <b>편집국장: 유원정</b>	
<b>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865-0009(대 표) (323)865-9025(광고국) Fax:(323)865-0056(편집국) (323)8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초특가 온라인 판촉물 전문기업

**판촉상인 US**

us.87sangin.com

**FREE SHIPPING!**

※현수막, 단체T셔츠 주문 환영

신속 정확 착한가격

기독교 서적 및 일반 서적

**45% OFF+tax**

— 한국서적 —

**HANKOOK BOOKS**

















동부교계 게시판



“작은 교회 큰 기쁨” 주제

CSO 사역 10주년 감사예배 및 토크쇼



CSO 사역 10주년 감사예배에서 이민영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취임 예배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이사회가 주관하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취임 예배가 9월 2일(주) 오후 5시 퀸즈장로교회당에서 열린다.

퀸즈장로교회 제2회 서머 뮤직 캠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제 2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서머 뮤직 캠프를 개최한다.

‘가정폭력 대처방법’ 목회자 세미나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사무총장 김준현 목사)가 뉴욕가정상담소와 협력해 ‘가정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뉴저지 실버미션스쿨 2018 가을학기 개강
뉴저지실버선교회(대표 양춘길 목사)가 운영하는 실버미션스쿨 2018 가을학기가 8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저녁식사 후 8시부터 10시까지 11주간에 걸쳐 뉴저지 한무리교회(담임 박상돈 목사)에서 열린다.

사랑의동산교회 여름 수양회
뉴욕 사랑의동산교회(담임 강신용 목사)가 12일(주)부터 15일(수)까지 펜실베이니아 스프링스레이크 수양관에서 여름 수양회를 갖는다.

뉴저지를 기반으로 소영교회를 위한 아웃리치 미니스트리(Out-Reach Ministry)와 연합사역(VBS, Holy-Win, YG Retreat 등)을 담당 해온 단체 CSO(Church Support Org.)가 사역 1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토크쇼를 열었다.

지난 8월 5일 오후 5시 뉴저지저성사회복사센터(NJ AWCA in Teaneck)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1부 예배, 2부 친교, 3부 토크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어떻게 작은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건강히 성장하며, 함께 연합하며 상생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며 “작은 교회의 장점과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의 확장을 위해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집회 하이라이트 토크쇼는 정혜성 목사(CSO 디렉터) 사회로 4명의

패널을 초대해 “작은 교회, 큰 기쁨 (Small Church & Great Joy)”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4명의 패널은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이석형 교수(영남신학대), 정인식 목사(CSO 디렉터), 조주 목사(크라이스트커뮤니티처치)

뉴저지초대교회 박형은 위임목사로

취임 1년... 7월 22일 공동의회서 2/3 이상 득표



뉴저지초대교회 박형은 목사(사진)가 위임목사로 확정됐다.

뉴저지초대교회는 지난 7월 22일 주일 공동의회를 열고 박형은 목사 위임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회원 3,347명 중 1,213명이 투표하고 2/3 이상 득표해 위임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1일 7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박형은 목사는 초대교회 정관에 따라 담임목사로 정빙 받고 1년 동안 임시목사로 사역했다. 이로써 박형은 목사는 향후 6년간 담

임목사 직을 수행하게 된다. 초대교회 정관에 의하면 담임목사는 매 6년마다 신임을 묻는 투표에서 2/3 이상 득표를 해야 한다.

담임목사만이 아니고 시무 장로도 6년 단임이며, 그 이후부터는 사역장로가 된다. 박형은 목사 부임 이래 교회 분위기에 대해 한 시무 장로는 “초대교회는 다음세대를 소중히 생각하며 분당보다 훨씬 큰 교육용 완공을 앞두고 있다. 박형은 목사는 1.5세로서 다음세대를 준비하는데 적임자이며, 쉽고 공감 가는 설교와 친밀감 넘치는 성품으로 교회를 하나로 묶어 잘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패밀리러치 제13회 후원모금골프대회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패밀리러치 제13회 후원모금골프대회

가정사역기관 패밀리러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지난 1일 제 13회 후원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뉴저지 제퍼슨에 위치한 버셔시 벨리 골프장에서 열린 이날 대회는 오후 1시부터 샷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패밀리러치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관의 다양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고 뉴저지 리틀 페리에 위치한 새 빌딩 레노베이션 공사에 사용할 기금을 모금했다. (기사제공: 패밀리러치)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전 세계에는 2만 여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복음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현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따르면 아시아권에 1만3천869명, 유럽에 1천988명, 아메리카권에 3천124명, 아프리카 중동권에 1천907명 그리고 오세아니아 태평양권에 713명이 파송돼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아울러 신문 보내기로 문선교에 동참하시도록 애독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미주크리스천신문 선물’은 일년 내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email, and payment details.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payment order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World-Moving Church' in the East (NY, NJ) region, featuring a dove logo and contact info.

Grid of 24 smaller church advertisements, each with a photo of the pastor and church details.











